

2022. 6. 18. 지방직(A책형) 시험 총평

이유진 국어 알고리즘

한줄
총평

모국어라고 무시하면? 독해 추론까지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 출제 난이도와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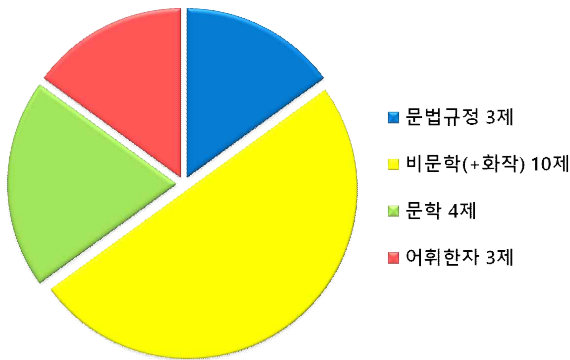
이번 지방직 9급 국어 시험은 올해 국가직 9급과 비교했을 때 각 영역의 출제비율은 같았으나 확실히 난도는 높았습니다. 특히 비문학에서 기존 공무원 기출보다는 PSAT 언어논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추론 문제가 연달아 두 문제(19, 20번)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공무원 9급 기출과 그에 준하는 문제들로만 훈련을 해 오신 경우, 답안 결정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법규정은 난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빈출 요소가 아닌 내용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압축서로만 공부하신 분들은 놓치셨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

이번 문학 영역의 특이점은 고전 운문에서 낯선 작품을 제시한 뒤 수능형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고를 통해 시상의 전개방식에 대한 훈련을 잘 해두셨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산문은 교과서 필수작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작품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유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휘한자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기출에 충실한 기본서 한 권을 잘 보셨다면 정답 선지는 바로 찾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출제 유형분석(A책형)



총평

1	문법 규정	언어예절	11	독해(비문학)	주제
2	독해(비문학)	서술 방식(개념)	12	독해(문학)	고전 운문 내용 이해
3	독해(비문학)	내용 확인 부정 발문	13	어휘	한자어의 의미
4	독해(작문)	고쳐쓰기	14	독해(문학)	고전 산문 내용 이해
5	독해(문학)	현대 운문 내용 이해	15	문법 규정	잘못된 피동 표현
6	독해(문학)	현대 산문 내용 이해	16	어휘	한자어의 표기
7	독해(비문학)	배열	17	독해(비문학)	내용 확인 부정 발문
8	독해(화법)	말하기 내용/방식	18	어휘	성어
9	독해(비문학)	내용 확인 부정 발문	19	독해(비문학)	일반 추론 긍정 발문
10	문법 규정	의미론 - 언어의 변천	20	독해(비문학)	일반 추론 복수 선택(명제 논리)

▶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 10번 > 단어의 어원을 묻는 문제(지엽적 출제이나 추론은 가능)
- 12번 > 낯선 고전 운문 출제
- 19번+20번 > 9급에 흔히 출제되지 않는 명제 논리

▶ 2023 대비 전략

국어는 기출만으로는 고득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독해 유형에 대한 훈련을 통해 어떤 난도의 시험지를 만나든 승리하실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메가 공무원 이 유 진 교수 2022 지방직 9급 국어 해설

現) 메가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서경대학교 공공인책자원학부 교수

박문각 공무원 국어 대표 교수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영어, 강남중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용익대학교 /

웅진세무대학 출강

기타)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저자

법률저널 PSAT 언어논리 칼럼 연재

KBS한국어능력시험 유형서 저자



이유진 우월한 국어



우월한 국어 이유진 카페

문 1. 언어 예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② (시누이에게) 고모, 오늘 참 예쁘게 차려 입으셨네요?
- ③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박혜정입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높임법과 언어 예절

언어 예절을 지킨 문장이다.

★ 오답 해설:

① '계시다'의 주어가 '말씀'인 간접 높임의 상황이다. 간접 높임을 사용할 때는 '계시다'를 쓸 수 없다.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② 화자 자신의 고모가 아니기 때문에 화자의 자녀의 이름을 앞에 넣어 '○○[자녀 이름] 고모'라고 부르는 것이 언어 예절에 부합한다.

I 2020년 언어 예절 호칭어 개정 사항

• 남녀 차별적인 호칭으로 관심을 모았던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은 대체할 만한 말로 자유롭게 부른다.
예) ○○[자녀 이름] 삼촌/고모, ○○씨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킬 때에는 '아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아내: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 ≡ 규실, 내권, 처, 처실.

부인: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 ≡ 현합.

문 2.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이치라는 젖은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 ① 묘사
- ② 설명
- ③ 유추
- ④ 분석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서술 방식(개념)

지문은 「메밀꽃 필 무렵」으로, 메밀꽃이 핀 달밤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묘사: 구체적인 대상을 감각적인 표현으로 서술하는 방식

★ 오답 해설:

② 설명: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방식

③ 유추: 생소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보다 친숙하고 쉬운 다른 것에 대응시켜서 설명하는 방식

④ 분석: 하나의 관념이나 대상을 구성 요소들로 나누어 가는 과정

문 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는 창작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연출자가 주관적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일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이미 공연 예술 무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기법일 수 있고,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요소와 보호 가능한 요소인 표현이 얹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셰익스피어를 보자. 그의 명작 중에 선대에 있었던 작품에 의거하지 않고 탄생한 작품이 있는가. 대부분의 연출자는 선행 예술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창작에 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무대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경우이고,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반 대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 ① 무대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는 쉽지 않다.
- ②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③ 독보적인 무대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 ④ 저작권법의 목표는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고 일반 대중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지문의 '무대연출 작업 중에서 ~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보적인 무대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하게 되면 후발 창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지문의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도용 여부를 밝히기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지문의 첫 문장인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지문의 마지막 문장인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4. ㉠ ~ ㉢의 고쳐 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놉티콘(panopticon)은 원형 평면의 중심에 감시탑을 설치해 놓고, 주변으로 빙 둘러서 죄수들의 방이 배치된 감시 시스템이다. 감시탑의 내부는 어둡게 되어 있는 반면 죄수들의 방은 밝아 교도관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교도관을 바라볼 수 없다. 죄수가 잘못했을 때 교도관은 잘 보이는 곳에서 처벌을 가한다. 그렇게 수차례의 처벌이 있게 되면 죄수들은 실제로 교도관이 자리에 ㉠ 있을 때조차도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의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 다수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파놉티콘의 디자인은 과거 사회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았다.

현대사회는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놉티콘(synopticon)의 시대가 되었다. 시놉티콘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인터넷의 ㉢ 동시성이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했고, ㉣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판적 인식 교류와 부정적 현실 고발 등 네티즌의 활동으로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전환이 일어났다.

- ① ㉠을 '없을'로 고친다.
 ② ㉡을 '소수'로 고친다.
 ③ ㉢을 '익명성'으로 고친다.
 ④ ㉣을 '누구나'로 고친다.

★ 정답: ② - 독해(작문) - 고쳐쓰기

파놉티콘의 구조상 교도관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교도관을 바라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죄수들은 교도관이 자리에 없을 때조차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의해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소수)으로 다수가 통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는 지문 그대로 '다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의해서 실제로 교도관이 없을 때조차도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은 '없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은 '인터넷의 익명성'이다. 따라서 ㉢은 '익명성'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하였고 그로 인해 비판적 인식 교류와 부정적 현실 고발 등 네티즌(다수)의 활동으로 권력자들(소수)을 감시하는 전환이 일어났다고 하였다. 이는 '특정인(소수)'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다수)' 자유롭게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누구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문 5.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산(山)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시메산골

영(嶺)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은

㉡ 칠팔십 리(七八十里)

돌아서서 옥십 리는 가기도 했소

㉢ 불귀(不歸), 불귀, 다시 불귀

삼수갑산에 다시 불귀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십오 년 정분을 못 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 위에서 운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 김소월, 「산」 -

- ① ㉠은 시적 화자와 상반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② ㉡은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을 비유한다.
 ③ ㉢은 시적 화자의 이국 지향 의식을 강조한다.
 ④ ㉣은 시적 화자가 지닌 분노의 정서를 대변한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 현대 운문 내용 이해

눈길을 걷는 화자의 여정을 표현한 '오늘도 하룻길은 / 칠팔십 리 / 돌아서서 옥십 리는 가기도 했'다는 부분을 통해, ㉡이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새는 '시메산골'을 그리워하며 높은 고개인 '영(嶺)' 때문에 울고, 화자는 '삼수갑산'을 그리워하며 '고개'로 인해 운다. 따라서 ㉠은 시적 화자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 ③ ㉢은 삼수갑산에 돌아갈 수 없는 시적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불귀(不歸): 「1」 돌아오지 아니함. 또는 돌아가지 아니함.

「2」 사람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산새가 오리나무 '위에서 우'는 것은 삼수갑산에 돌아가고 싶은 시적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다.

★ 작품 해설: 김소월, <산>

• 해제: 이 시는 후일 발표한 '길'의 전편에 속하는 작품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낯선 타향에서 유랑의 길을 걷는 화자의 비애감을 표출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자기와 비슷한 정황의 오리나무 위의 '산새'를 바라보며 산새와 일체화된다. 새는 평화롭게 살았던 '시메산골'을 그리워하나 높은 고개

가 있어 울고, 화자는 '삼수갑산'을 그리워하나 '고개'로 인해 운다. '삼수갑산'을 떠나 눈길을 뚫고 '오늘도 하룻길은 / 칠팔십 리'를 걸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을 향해 '육십 리'를 되돌아갈 뿐이다. '시메산골'을 향한 새에게 놓여 있는 '영(嶺)'이나, '삼수갑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화자에게 놓여 있는 '고개'는 모두 장애의 대상이다. 그리움을 잊고자 '사나이 속'으로 다짐해 보지만, '십오 년 정분'의 '삼수갑산'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객관적 상관물인 '산새'는 병혹하고 차가운 '눈' 위에서 운다.

- 주제: 임을 만나지 못하는 정한과 비애
- 구성
 - 1연: 산새의 울고 있는 모습
 - 2연: 눈길의 여정
 - 3연: 떠나기를 주저하는 심정
 - 4연: 잊을 수 없는 삼수갑산

문 6.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근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쥘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자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쥘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자…….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에서 -

- ① 정 씨는 영달이 백화와 함께 떠날 것을 권유했군.
- ② 백화는 영달의 선택이 어떤 것일지 몰라 불안했군.
- ③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떠나지 않았군.
- ④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말한 것은 정 씨와 영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군.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산문 내용 이해

백화와 같이 가라는 정 씨의 말에 영달은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라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백화와 정확해서 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떠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정 씨는 영달에게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이라고 하며 백화와 함께 떠날 것을 권유하였다.
- ② 백화는 대화를 나누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를 통해 백화가 영달의 선택이 어떤 것일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영달은 백화에게 ‘삼립빵 두 개와 쥘 달걀’을 주었고, 이를 받아 쥘 백화는 영달의 배려에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따라서 백화는 영달과 정 씨에게 자신의 본명을 말하면서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 작품 해설: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해제: 이 작품은 우연히 만난 세 인물의 여정을 통해 1970년대의 산업화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어디까지 훼손하는지를 애잔하게 그리고 있다. 영달, 정 씨, 백화는 모두 뜨내기기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첫 만남에서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한다. 하지만 동행의 과정에서 점차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이 작품이 성취한 중요한 감동이다. 동시에 이 작품은 현실주의의 시선도 잃지 않는데, ‘삼포’라는 풍요의 공간과 따뜻한 관계에 정착하려는 인물들의 열망과 그 좌절을 담담하게 그리면서 산업화의 비극을 예리하게 드러낸다.

-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들의 삶의 애환과 연대 의식
- 전체 줄거리: 영달은 공사판에서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치다가 정 씨를 만난다. 정 씨의 고향인 삼포로 길을 잡은 두 사람은 백화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지만, 우연히 만난 백화와 동행한다. 추위를 피해 들어간 폐가에서 백화는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후 이들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정을 느낀다. 기차역에서 백화는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고 영달에게 제안하고 영달은 고민 끝에 기차표와 먹을거리를 챙겨 건네고 백화를 떠나보낸다. 정 씨는 한 노인으로부터 자신의 고향인 삼포가 공사판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정처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문 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 주었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동북아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 (나) 100년 전 우리는 수난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해양으로 나가려는 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세력이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 (다)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과 세계 선두권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물류 기반도 손색이 없습니다.
- (라) 그 아픔은 분단으로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변방으로 머물러 왔던 동북아시아가 북미·유럽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라) - (나) - (다)
 ③ (나) - (가) - (라) - (다)
 ④ (나) - (라) - (다) - (가)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배열

(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과거와 달리 '희망의 조건'이 될 거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나) 한반도가 과거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수난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나)가 (가)보다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선지 ①, ② 탈락

(다)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우리나라(한반도)가 과거의 아픔(전쟁의 폐해)을 극복할 것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다)는 과거의 아픔에 대해 서술한 (나)보다 뒤에 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에 제시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유리한 조건(희망의 조건)이 될 거라는 (가)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 선지 ③ 탈락

(라) 지시어 '그 아픔'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앞에 과거의 아픔이 제시된 (나)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나)-(라)-(다)-(가)이다.

문 8.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예은 씨, 오늘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 B: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하면 되겠지요?
- A: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 B: 네, 그럼 회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요약하고, 팀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팀원에게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A: 예은 씨, 그런데 개조식으로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B: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 개조식으로 요약할 경우 회의 내용이 과도하게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 ①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② A와 B는 대화 중에 공감의 표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
 ③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 제기기에 대해 자신이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④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정답: ② - 독해(화법) - 말하기 내용/방식

'공감의 표지'는 상대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는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A와 B 모두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겠네요'의 언어적 표현과 고개를 끄덕이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공감적 듣기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입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데 목적을 두는 '너 중심 듣기'이다. 공감적 듣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판하거나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수용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 소극적 들어주기: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화맥을 조절해 주는 격려하기 기술
- 적극적 들어주기: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해 주고 반영해 주는 역할을 통해서 화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오답 해설:

- ①, ③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한 적이 없다. B가 먼저 '개조식으로 요약하'겠다고 A에게 보고하자, 이에 대해 A는 '~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라며 그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개조식으로 요약할 경우 회의 내용이 과도하게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B의 발언에 나오는 내용이다. A의 질문을 통해 B가 이 문제를 인지한 것은 사실이나, A가 명시한 내용은 아니다.

문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올해 A시는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 의회 교실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의회 교실의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운영 방안에는 지방자치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 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최근 A시는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로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의회 교실을 운영하였다. 참석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 의원 선서를 한 후 주제에 관한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전자 투표로 표결 처리하였다. 학생들이 의회 과정 전반에 대해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 ① A시에 있는 학교의 만 19세 미만 재학생은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② A시의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 교실의 민주 시민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A시에서 시행된 청소년 의회 교실에서 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장 시설을 사용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 ④ A시의 올해 청소년 의회 교실은 의원 선서, 조례안 상정, 자유 발언, 찬반 토론, 전자 투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A시의 올해 청소년 의회 교실의 참석 학생들은 의원 선서를 한 후 주제에 관한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전자 투표로 표결 처리를 하는 순서로 의회 교실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A시의 올해 청소년 의회 교실은 의원 선서, 자유 발언, 조례안 상정, 찬반 토론, 전자 투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 오답 해설:

- ① 지문의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의회 교실의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운영 방안에는 민주 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시의회 의장은 민주 시민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지문의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과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의회 교실을 운영하였다.'를 통해 시의회 의장이 본회의장 시설을 사용하도록 지원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 10.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난: 한자어 '간난'에서 'ㄴ'이 탈락하면서 된 말이다.
- ② 어리다: '어리석다'는 뜻에서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바뀐 말이다.
- ③ 수탉: 'ㅎ'을 종성으로 갖고 있던 '술'에 '뚝'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이다.
- ④ 점잖다: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잖이'에 '하다'가 붙어 형성된 말이다.

★ 정답: ④ - 이론 문법 - 의미론 - 언어의 변천

'언행이나 태도가 의젓하고 신중하다.'를 의미하는 '점잖다'는 '점(절)-+-지+아니+하-'가 줄어서 된 말이다. 또한 '의젓하고 신중한 언행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점잖이'는 형용사 어근 '점잖-'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이다.

점잖다: 「1」 언행이나 태도가 의젓하고 신중하다.

「2」 품격이 꽤 높고 고상하다.

점잖이: 의젓하고 신중한 언행이나 태도로

★ 오답 해설:

①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가난'은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을 의미하는 '艱難(간난)'이 변한 말이다. '간난'에서 'ㄴ'이 탈락하면서 '가난'이 된 것이다.

艱 어려울 간, 難 어려울 난

② '어리다'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말이다.

③ 옛말에서 'ㅎ' 종성 체언이었던 단어들 중, 현재에도 [ㅎ] 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뒷말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다. '수탉'은 'ㅎ' 종성 체언이었던 '술'과 '뚝'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이다.

문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전에 ‘협오’는 대중에게 관심을 끄는 말이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익숙하게 듣는 말이 되었다. 이는 과거에 협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문제가 폭발하듯 가시화되었다는 뜻이다. 협오 현상은 외계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거기엔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한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 사항이 있다. 협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협오가 주제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니, 얼핏 이율배반처럼 들리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왜 협오가 나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나쁜 감정 이니까 나쁘다.”, “악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게 만드니까 나쁘다.” 이 대답들은 분명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협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리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협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사회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협오는 증상이다. 증상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면 곤란하다. 우리는 협오나 증오 그 자체를 사회악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 ① 협오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협오 현상은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③ 협오 현상을 만들어 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④ 협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사회문제는 잘 보인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주제

지문에서 ‘협오’는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하며, 사회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협오는 증상이며, 증상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자체를 사회악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협오 현상에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 협오 현상을 만들어 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글의 주제는 ③이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협오 현상은 외계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거기엔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협오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문의 주제도 아닐뿐더러 지문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협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선 안 되며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대답은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협오 현상을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지문의 주제도 아닐뿐더러 지문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④ 둘째 문단에 따르면 협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협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사회문제는 잘 보인다는 것은 지문의 주제도 아닐뿐더러 지문의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문 1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有此茅亭好 이 멋진 ㉠초가 정자 있고
綠林細徑通 수풀 사이로 오솔길 나 있네
微吟一杯後 술 한 잔 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高座百花中 온갖 꽃 속에서 ㉡높다랗게 앉아 있네
丘壑長看在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건만
樓臺盡覺空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 있구나
莫吹紅一點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老去惜春風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안타깝구나
- 심환지, 「육각지하화원소정염운(六閣之下花園小亭拈韻)」 -

- ① ㉠: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를 매개하고 있다.
- ② ㉡: 시적 화자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연에 대비되는 쇠락한 인간사를 암시하고 있다.
- ④ ㉣: 꽃잎을 흔드는 부정적 이미지로 기능하고 있다.

★ 정답: ① - 독해(문학) - 고전 운문 내용 이해

이 작품은 시적 화자가 봄철 풍경을 보고 생겨난 감회를 드러낸 것이다. ‘초가 정자’는 시적 화자가 묘사하는 풍경의 일부이자 시를 읊조리는 공간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이 전개된 적이 없으므로 ‘초가 정자’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사상 전개를 매개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② 시적 화자는 ‘온갖 꽃 속에서 높다랗게’ 앉아서 ‘술 한 잔 하고 시를 읊조리’고 있다. 이런 시적 화자의 모습에서 고고하고 초연한 태도가 드러난다.
- ③ ‘산과 계곡’인 자연은 그대로지만, ‘누대’는 비어 있는 모습을 대비하여 자연에 대비되는 쇠락한 인간사를 암시함을 알 수 있다.
- ④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를 통해 시적 화자가 꽃잎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붉은 꽃잎을 흔드는 ‘봄바람’은 부정적 이미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안대회, 《정조의 비밀편지》

이 시는 제목과 내용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봄철 풍경을 보고 생겨난 시인의 감회를 읊었다. 온갖 꽃 속에서 높다랗게 앉아 있다는 3, 4구의 표현에는 고고하고 초연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담았다. 그런데 예전과 다름없이 산과 계곡은 아름답게 존재하는데도 누대로 찾아와 구경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5, 6구는 정치적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도 지지자와 동료가 거의 사라졌다는 정치적 함의를 엿볼 여지가 있다. 붉은 꽃잎 하나라도 떨어뜨릴까봐 봄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는 7, 8구의 내용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법하다.

문 13. 밑줄 친 단어 중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 ① 선생님께서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셨다고 한다.
- ② 그는 수완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 ③ 여러 팀이 우승을 위해 긴 시간 동안 각축을 벌였다.
- ④ 사업단의 발족으로 미뤄 뒀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 정답: ③ - 어휘 - 한자어의 의미

‘각축(角逐)’은 ‘서로 이기려고 다투며 텃버들.’을 의미한다. 해당 단어에는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았다.

각축(角逐): 서로 이기려고 다투며 텃버들. ≒ 추축.

角 뿔 각, 逐 쫓을 축

★ 오답 해설:

① ‘슬하(膝下)’는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머니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르는 말이다. ‘슬(膝)’이 ‘무릎’을 의미한다.

슬하(膝下):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머니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주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른다.

膝 무릎 슬, 下 아래 하

② 해당 문장에서 ‘수완(手腕)’은 ‘일을 꾸미거나 치러 나가는 재간.’을 의미한다. ‘수(手)’가 ‘손’을 ‘완(腕)’이 ‘팔’을 의미한다.

수완(手腕): 「1」 일을 꾸미거나 치러 나가는 재간.

「2」 손목의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 = 손회목.

手 손 수. 腕 팔 완

④ ‘발족(發足)’은 ‘어떤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이 시작됨. 또는 그렇게 일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족(足)’이 ‘발’을 의미한다.

발족(發足): 어떤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이 시작됨. 또는 그렇게 일을 시작함.

發 펴 발, 足 발 족

문 1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계월이 여자 옷을 벗고 갑옷과 투구를 갖춘 후 용봉황월(龍鳳黃鉞)과 수기를 잡아 행군해 별궁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군사를 시켜 보국에게 명령을 전하니 보국이 전해져 온 명령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러나 보국은 예전에 계월의 위엄을 보았으므로 명령을 거역하지 못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문에 대령했다.

이때 계월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보국이 어찌 이다지도 거만한가? 어서 예를 갖추어 보이라.”

호령이 추상과 같이 군졸의 대답 소리로 장안이 울릴 정도였다. 보국이 그 위엄을 보고 겁을 내어 갑옷과 투구를 끌고 몸을 굽히고 들어가니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 작자 미상, 「홍계월전」에서 -

(나) 장끼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여 ㉡ 까투리 홀로 경황없이 물러서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 제 열두 장목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개 조아 조춤조춤 들어가서 반달 같은 허뿌리로 들입다 팍 찍으니, 두 고패 둥그레지며 ... (중략) ... 까투리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 잘 들어도 패가하고,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까투리 거동 볼작시면, 상하평전 자갈밭에 자락머리 풀어 놓고 당굴당굴 뒹굴면서 가슴치고 일어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 애통하며,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봉성지통(崩城之痛) 극진하니,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들도 불쌍타 의논하며 조문 애곡하니 가련 공산 낙망천에 울음소리뿐이로다.

- 작자 미상, 「장끼전」에서 -

- ① ㉠과 ㉡은 모두 상대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 ② ㉠이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면, ㉡은 옹호하고 있다.
- ③ ㉠이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적극적인 반면, ㉡은 소극적이다.
- ④ ㉠이 주변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반면, ㉡은 적대적인 반응을 얻는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고전 산문 내용 이해

‘계월’은 ‘보국’을 불러내어 예를 갖추라고 명령하며, 갈등을 타개하는 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까투리’는 ‘장끼’가 고집을 끝내 굽히지 않자, ‘경황없이 물러’섰으므로 갈등을 타개하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 오답 해설:

① ‘계월’은 ‘보국’에게 “예를 갖추어 보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으므로 ‘계월’이 ‘보국’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장끼’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까투리’에 비해 ‘장끼’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계월’은 “보국이 어찌 이다지도 거만한가?”라며 보국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까투리’ 역시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라며 ‘장끼’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장끼’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④ ‘계월’의 호령에 ‘군졸의 대답 소리로 장안이 울릴 정도’였으며, ‘보국’은 이를 보고 ‘겁을 내어’ 두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계월’이 주변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까투리’의 주변인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들’은 ‘까투리’를 ‘불쌍타 의논하’였다. ‘까투리’는 주변으로부터 연민을 받고 있으므로 적대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 (가) 작품 해설: 작자 미상, <홍계월전>

•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군담 소설이자 여성 영웅 소설이다.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주인공 홍계월의 고행과 이를 극복한 무용담을 그리고 있다. 남성보다 여성의 능력이 우월하게 그려지며 남편이 아내의 지배를 받고 군법을 위반해 엄벌을 받기도 한다. 또한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도 벼슬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이는 조선 후기 소설의 주요 독자층인 여성들의 정서와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 여성 영웅 홍계월의 고난과 무용담

• 전체 줄거리: 명나라 때 홍 시랑의 무남독녀로 태어난 계월은 난을 만나 부모와 헤어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여공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이후 평국이라는 이름을 얻고 여공의 아들이 보국과 함께 공부하여 둘 다 과거에 급제한다. 서번과 가달이 침략하자 둘은 전쟁에 참여하며 전쟁 중에 평국은 헤어진 부모를 다시 만난다. 우연히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지고 천자의 명으로 평국은 어쩔 수 없이 보국과 결혼하게 된다. 결혼 후에도 둘은 갈등을 일으키나 결국 보국이 평국(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후 둘은 행복한 삶을 산다.

★ (나) 작품 해설: 작자 미상, <장끼전>

• 해제: 이 작품은 새를 의인화하여 우의적으로 인간 사회를 풍자한 소설이다. 여자의 말이라고 함부로 무시하다 죽은 장끼와, 장끼가 죽은 후 곧바로 개가하는 까투리를 통하여 남존여비와 개가 금지라는 당시의 유교 도덕을 비판 풍자하고 있다.

• 주제: 남존여비(男尊女卑) 사회 제도 비판 / 여자의 개가(改嫁) 금지라는 유교 윤리를 풍자

• 전체 줄거리: 엄동설한에 장끼와 까투리가 아홉 명의 아들과 열두 딸을 데리고 궁주리는 형편이 되어 밥을 찾아 큰 들을 지나게 되었는데, 들에서 붉은 콩 한 알을 발견했다. 간밤 꿈 이야기를 하며 먹지 말라고 간청하는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고 그 콩을 먹으려던 장끼는 밭에 걸리고 만다. 이때 죽음을 앞둔 장끼가 까투리에게 유언하기를 절대로 개가하지 말라고 한다. 까투리가 남편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조문(弔問)은 부엉이, 물오리 등이 까투리에게 청혼하니 이를 거절하는데 그러다가 조문 온 홀아비 장끼를 본 후 마음을 바꾸어 그와 재혼한다. 재혼한 이들 부부는 아들딸 모두 혼인시키고 명산대천을 구경하다가 큰 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

문 15.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 ① 습관처럼 중요한 말을 되뇌는 버릇이 있다.
- ② 나는 친구 집을 찾아 골목을 헤매고 다녔다.
- ③ 너무 급하게 밥을 먹으면 목이 메기 마련이다.
- ④ 그는 어린 시절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 정답: ④ - 이른 문법 - 통사론 - 잘못된 피동 표현

제시된 예문은 '벌어진 사이에 들어가 죄이고 빠지지 않게 되다.'를 의미하는 '끼이다'가 쓰인 문장이다. 여기서 '끼이다'는 '끼다'의 피동사이다.

또한 '끼다'에는 '끼이다'의 준말을 의미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그는 어린 시절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끼는 사고를 당했다.'고 쓸 수 있다.

끼다: 【…에】 '끼이다'의 준말.

끼이다: 【…에】 벌어진 사이에 들어가 죄이고 빠지지 않게 되다. '끼다'의 피동사.

★ 오답 해설:

- ① → 습관처럼 중요한 말을 되뇌는 버릇이 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말한다.'를 의미할 때는 '되뇌다'로 적는다. '되뇌이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 ② → 나는 친구 집을 찾아 골목을 헤매고 다녔다.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를 의미할 때는 '헤매다'로 적는다. '헤매이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 ③ → 너무 급하게 밥을 먹으면 목이 메기 마련이다.
'뿔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막히거나 채워지다.'를 의미할 때는 '메다'로 적는다. '메이다'는 필수 부사어를 써야 하는 동사이다.
메이다: 【…에】 '1' 어깨에 걸쳐지거나 올려놓이다. '메다'의 피동사.
'2' 어떤 책임을 지게 되거나 임무를 맡게 되다. '메다'의 피동사.

문 16.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시대 영웅으로 소방관(消防官)이 있다.
- ② 과학자(科學者)는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 ③ 그는 인공지능 연구소의 연구원(研究員)이 되었다.
- ④ 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辯護士)로 선임되었다.

★ 정답: ④ - 어휘 - 한자어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변호사'는 '辯護士'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변호사(辯護士):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辯 말씀 변, 護 도울 호, 士 선비 사
事 일 사

★ 오답 해설:

- ① 소방관(消防官): '소방 공무원'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消 사라질 소, 防 막을 방, 官 벼슬 관
- ② 과학자(科學者): 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주로 자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이른다.
科 과목 과, 學 배울 학, 者 놉 자
- ③ 연구원(研究員):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研 갈 연, 究 연구할 구, 員 인원 원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은 페스트이다. 페스트가 유럽의 인구를 격감시킴으로써 사회 경제 구조가 급변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재래의 전통이 지니고 있던 강력한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예컨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질병을 예측하지 못한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페스트로 인해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선량한 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을 여러 방향에서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는 광경에 익숙해졌고, 인간의 유해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점차 열여졌다. 교회에서 제시한 세계관 및 사후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삶과 죽음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기 시작했다.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신에 대한 무조건적 찬양과 복종 대신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술사에서 두드러지게 포착된다. 인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었고, 인체를 묘사하는 다양한 화법도 등장했다. 인체에 대한 관심은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여전히 신봉하던 의사들에게 해부학적 지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당시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

- ①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의 발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 ② 페스트로 인한 선인과 악인의 무차별적인 죽음은 교회가 유지하던 막강한 권위를 약화시켰다.
- ③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 ④ 르네상스 시기에 해부학은 의사들보다도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둘째 문단에 따르면,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이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고, 이러한 재평가에 따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셋째 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페스트는 유럽의 인구를 격감시킬 정도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문단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 페스트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페스트가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페스트, 즉 전염병의 창궐이 르네상스의 발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첫째 문단의 "페스트로 인해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페스트로 인한 무차별적인 죽음은 교회가 유지하고 있던 막강한 권위를 약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셋째 문단의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여전히 신봉하던 의사들에게 ~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18.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는 글씨를 쓰다 남은 먹을 버리기 아까워 그린 듯이 갈필(渴筆)의 거친 선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정말 큰 기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서툴러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대가의 덤덤한 듯, 툭 던지는 한마디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 의식을 해집는다.

- ① 巧言令色 ② 寸鐵殺人 ③ 言行一致 ④ 街談巷說

☆ 정답: ② - 어휘 - 성어

밀줄 친 부분은 '특' 던지는 한마디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 의식을 해집는다.'이다. 이는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寸鐵殺人(촌철살인)'과 어울린다.

촌철살인(寸鐵殺人):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

寸 마디 촌, 鐵 쇠 철,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 오답 해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아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巧 공교할 교, 令 말씀 언, 令 하여금 령(영), 色 빛 색
- ③ 언행일치(言行一致):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함. ㄴ 말짓일치.
言 말씀 언, 行 다닐 행, 一 한 일, 致 이를 치
- ④ 가담항설(街談巷說): 거리나 향간에 떠도는 소문. ㄴ 가담항어, 가담항의, 가설항담.
街 거리 가, 談 말씀 담, 巷 거리 향, 說 말씀 설

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들은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소위 '검증 원리'라고 불리는 것을 제안했다. 검증 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 두 문장을 예로 생각해 보자.

(가)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있다.

(나)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그 자체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는다.

위 두 문장 중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현실적으로 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가)는 분명히 경험을 통해 진위를 밝힐 수 있다. 즉 우리는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가)는 검증할 수 있고, 유의미한 문장이라고 판단한다. 그럼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나)의 진위를 확정할 수 있는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나)는 검증할 수 없고 과학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말한다.

- ①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 ③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 ④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지문에 제시된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입장과 그들이 기준으로 삼은 ‘검증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과학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 (2)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 (3) 진위를 확정(참거짓을 검증)하려면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 (4) 진위를 확정(참거짓을 검증)하기 위해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과학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다.

① (1)에 의하면 무의미한 문장은 과학에 사용될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② (1)에 의하면 과학에서 사용되는 문장이 유의미한 것은 맞지만,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한지는 알 수 없다.
- ③ (2)~(4)에 의하면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어야 유의미한 문장인 것은 맞지만, 이는 검증의 가능성이 기준이므로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 하여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지만 검증을 위해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유의미한 문장이다.
- ④ (2)에 의하면 경험을 통해 거짓을 확정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컴퓨터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나아가 컴퓨터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을까? 컴퓨터는 다양한 전기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물리 법칙, 프로그래밍 방식, 하드웨어의 속성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특정한 초기 상태에서부터 다음 상태로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로 이동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즉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시스템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에는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그런 뜻에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다.

〈보기〉

7.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 나.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neg, \perp, \sqsubset$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복수 선택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다.
- (2)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결과가 하나로 고정된다.
- (3)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필요조건이다.
- (2)와 (3)에 의하면 (4)가 도출된다.
- (4)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양립 불가)
- (5)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

ㄱ. (1), (4), (5)에 의하면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ㄴ. (5)에 의하면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져야 하며, (4)에 의하면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ㄷ. (3)에 의하면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